



◆ 호주 EFIC, 단기 수출보험사업 부문 매각

2003년 8월 14일 호주 정부는 EFIC의 연간 업무실적 중 약 90%를 점하는 단기 수출보험 사업부문을 네덜란드 민간 보험회사인 GERLING NCM 측에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매각작업은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의 주된 이유는 IT 투자부담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미 민영화 움직임에 앞서 EFIC은 2002년 2월부터 GERLING NCM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EFIC이 인수한 단기수출보험 계약을 GERLING NCM이 재인수(rein-sure)하고 GERLING NCM 측의 수입자 신용분석자료와 온라인 서비스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 2000년 호주 정부는 수출신용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작업을 벌인 바 있다. 동 검토 결과 두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첫 번째 결론은 EFIC의 단기수출보험 영업규모로는 이를 지속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IT에 대한 신규 투자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EFIC의 중장기 수출신용(직접대출, 보증 및 보험)사업은 호주의 자본재수출 증대를 위해 매우 긴요하며, EFIC이 계속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EFIC은 상업금융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중장기수출신용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국익계정(National In-terest Account)도 계속 관리하게 될 것이다. 호주 정부는 단기수출보험 분야가 매각되더라도 1997년의 외환위기 때처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익계정을 통하여 단기수출신용도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GERLING NCM은 세계 제 2위의 신용보험업체로 2002년도 인수실적이 2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며,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25%에 달한다. 동사는 연간 6,080억 달러 이상의 무역액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매일 12,000건의 보험을 인수하고 있으며, 전 세계 4,500만 이상의 수입자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거대 보험회사이다. 한편, 동사는 곧 사명을 Atradius로 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승 권】